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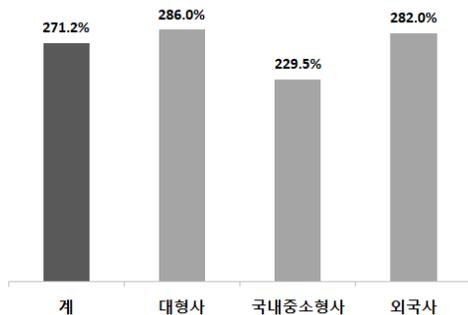
3. 리스크³⁾

가. 총괄

■ 2018년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 271.2%, 손해보험 233.4%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보다 대형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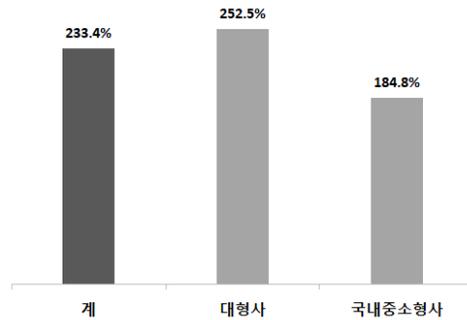
-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증가 및 2018년 4분기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이 증가⁴⁾하여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와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강화⁵⁾에 따른 시장위험액 증가로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소폭 증가함

〈그림 8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지급여력비율



주: 24개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임⁶⁾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지급여력비율



주: 11개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대상임⁷⁾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보유 리스크 중 신용리스크의 비중이 각각 39.2%, 37.9%로 가장 높지만, 회사 유형별로 보면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함

3) 본 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이번 호에서는 2018년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함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16), “18.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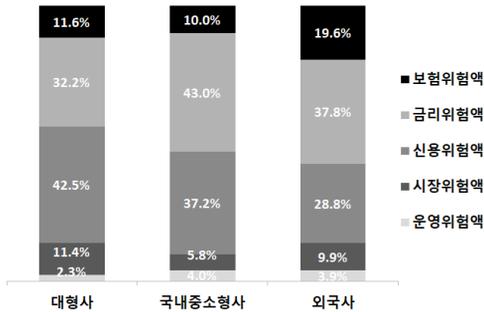
5) 변액보증위험액 산정기준: 예상 손실액 상위 15% 평균 → 상위 10% 평균

6) 대형사(삼성, 교보, 한화), 국내중소형사(DB, 흥국, 미래에셋, DGB, KDB, 신한, 오렌지라이프, 하나, KB, IBK,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외국사(동양, 푸르덴셜, 치브라이프, BNP파리바카디프, 푸본현대, 라이나, AIA, 메트라이프, ABL)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7) 대형사(삼성, 현대, DB, KB), 국내중소형사(한화, MG, 메리츠, 롯데, 흥국, 더케이, 농협)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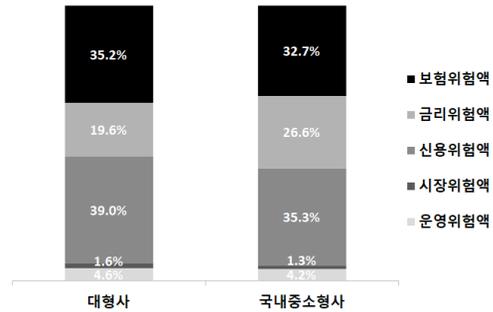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신용위험 비중이 42.5%를 차지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 43.0%,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모두 신용위험액과 보험위험액 비중이 약 70%를 차지함

〈그림 9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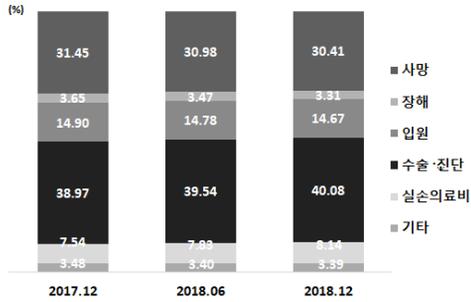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나. 보험리스크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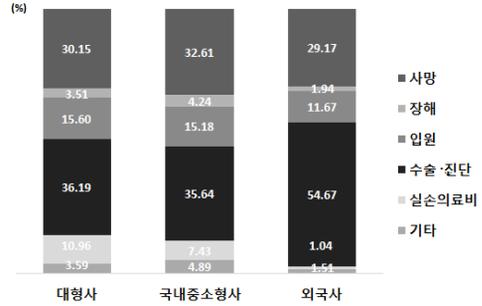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수술·진단,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 장애,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수술·진단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1.11%p 상승한 40.08%를 나타낸 반면, 사망 보장 비중은 전년 대비 1.04% 하락한 30.41%를 나타냄
- 외국사의 경우 국내사에 비해 수술·진단 보장 비중이 54.67%로 매우 크며, 실손의료비 보장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임

〈그림 92〉 생명보험 보장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보장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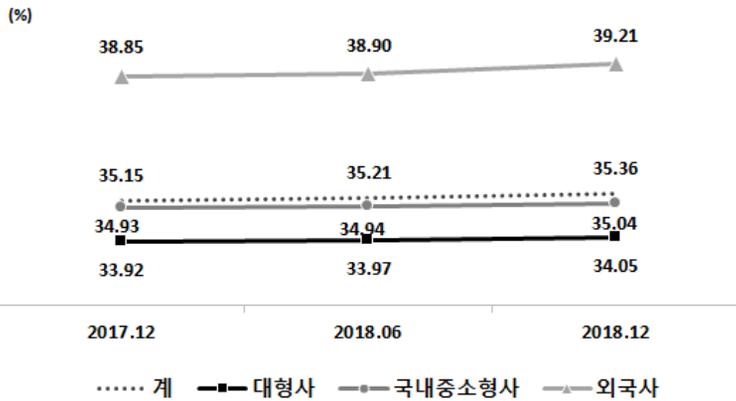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 장해, 입원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18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2018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대비 0.21%p 상승한 35.36%이며, 외국사의 경우 0.36%p 상승하여 대형사(0.13%p), 중소형사(0.11%p)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94〉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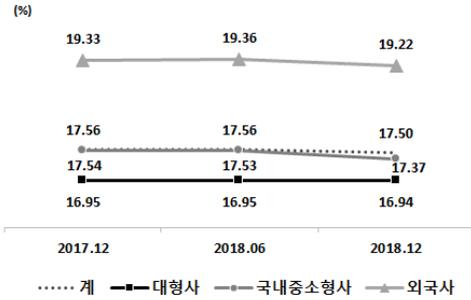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실손의료비 보장의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입원 보장 리스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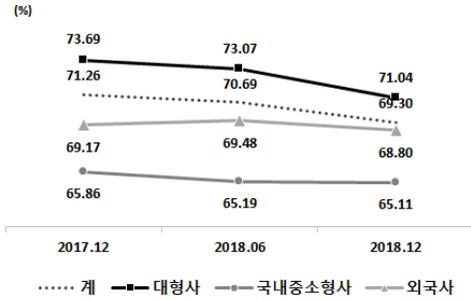
- 사망과 장애, 입원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각각 전년 대비 0.05%p, 1.96%p, 1.10%p 하락한 17.50%, 69.30%, 12.31%를 나타냄
- 대형사의 경우 장애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2.64%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입원 보장 보험가격위험계수의 하락폭이 각각 1.65%p, 2.53%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수술·진단과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각각 전년 대비 0.003%p, 2.41%p 상승한 55.90%, 25.48%를 나타냄
- 수술·진단 보장의 경우 대형사는 보험가격위험계수가 전년 대비 0.18%p 하락한 반면, 국내중소형사 및 외국사는 증가하였으며, 실손의료비 보장은 대형사, 중소기업사 모두 보험가격위험계수가 각각 전년 대비 2%p 이상 크게 상승함

〈그림 95〉 생명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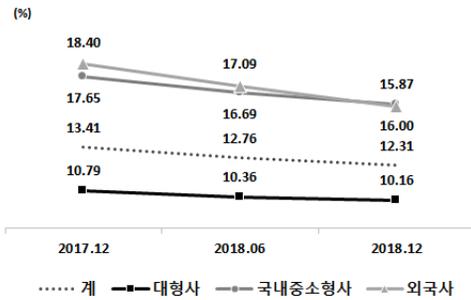
(1) 사망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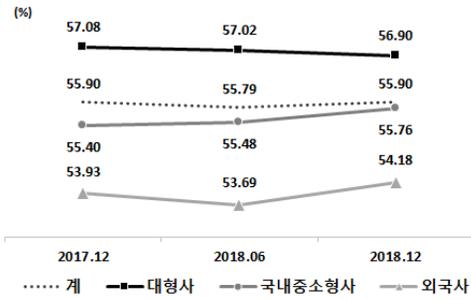
(2) 장애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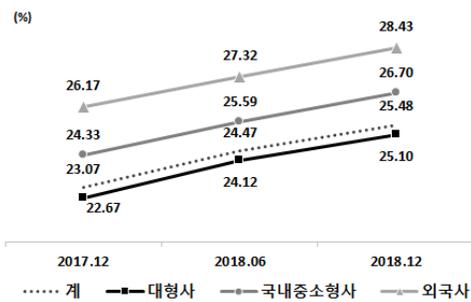
(3) 입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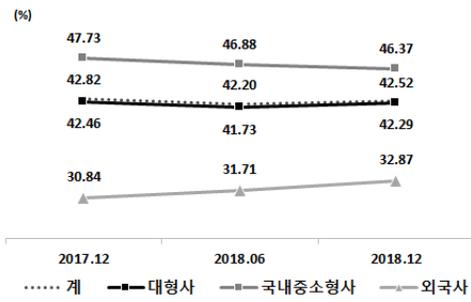
(4) 수술·진단보험



(5) 실손의료비보험



(6) 기타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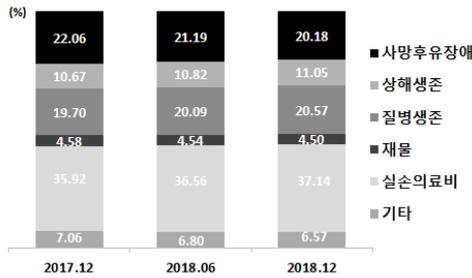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전체 보험보장 익스포져 중 상해생존,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망후유장애, 재물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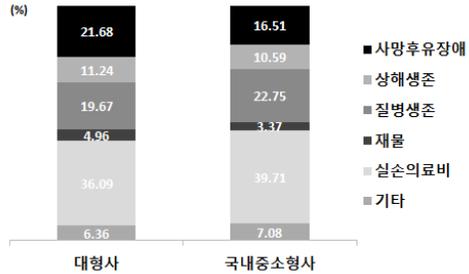
- 질병생존, 실손의료비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0.48%p, 0.58%p 상승한 20.57%, 37.14%를 나타낸 반면, 사망후유장애 비중은 전년 대비 1.01%p 하락한 20.18%를 나타냄
- 대형사의 경우 국내중소형사에 비해 사망후유장애 비중이 21.68%로 큰 편이며, 질병생존 보장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임

〈그림 96〉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져 비중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7〉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장 익스포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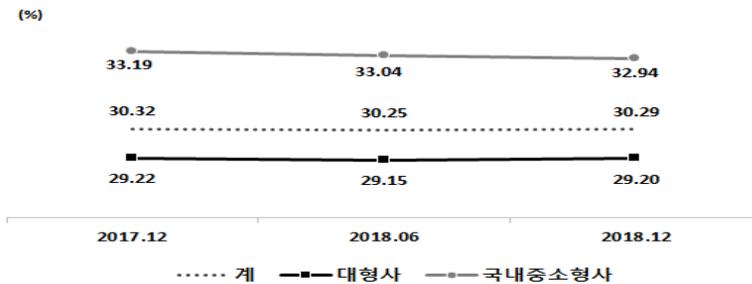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사망후유장애, 상해생존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약 3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중소형사는 보험가격위험계수가 2017년 말 33.19%에서 2018년 말 32.94%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98〉 회사 유형별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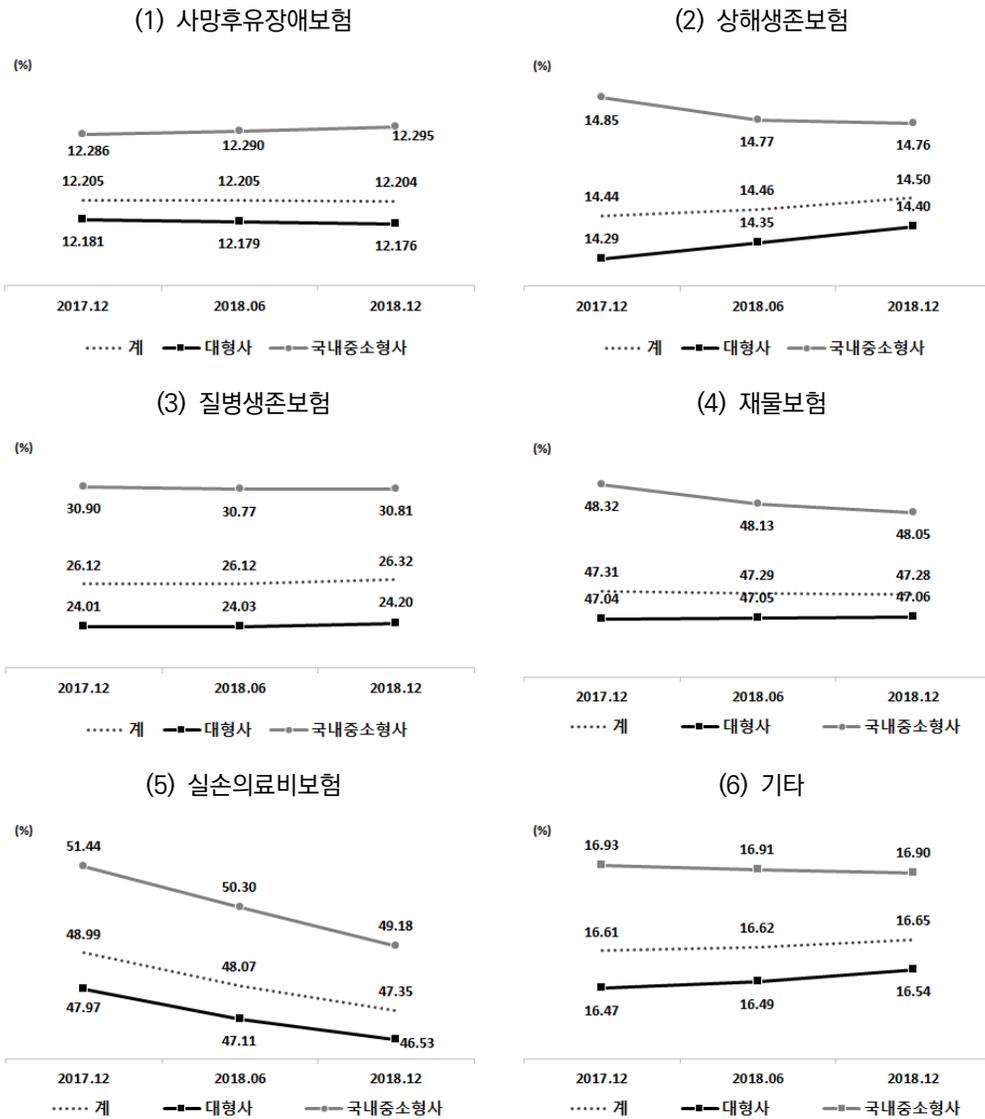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실손의료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하락세인 반면 상해생존 및 질병생존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며 보장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모습이 나타남

○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산업과 다르게 실손의료비 보장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임

〈그림 99〉 장기손해보험 보장별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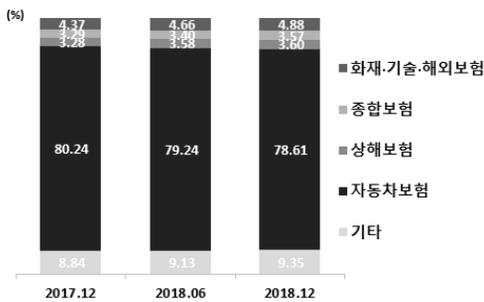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나) 자동차·일반손해보험

■ **[보험가격위험 익스포저]**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고 나머지 보험의 익스포저는 상승함

- 자동차보험의 익스포저 비중은 전년 대비 1.63%p 하락한 78.61%를 나타냈으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0.51%p, 0.28%p, 0.3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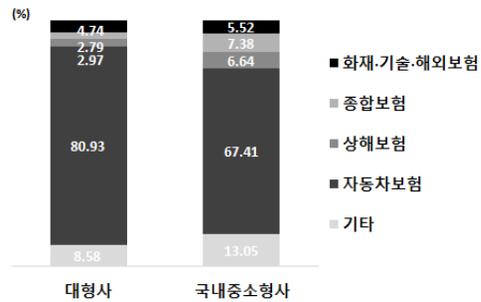
〈그림 100〉 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1〉 회사 유형별 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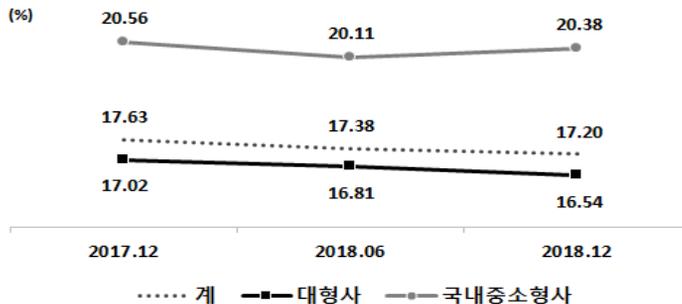
주: 1)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2) 기타에는 해상보험, 근재·책임보험, 기타일반보험, 외국인보험이 포함됨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동차·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2017년 말 대비 하락함

- 2018년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전년 대비 0.42%p 하락한 17.20%이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전년 대비 0.48%p, 0.18%p 하락한 16.54%, 20.3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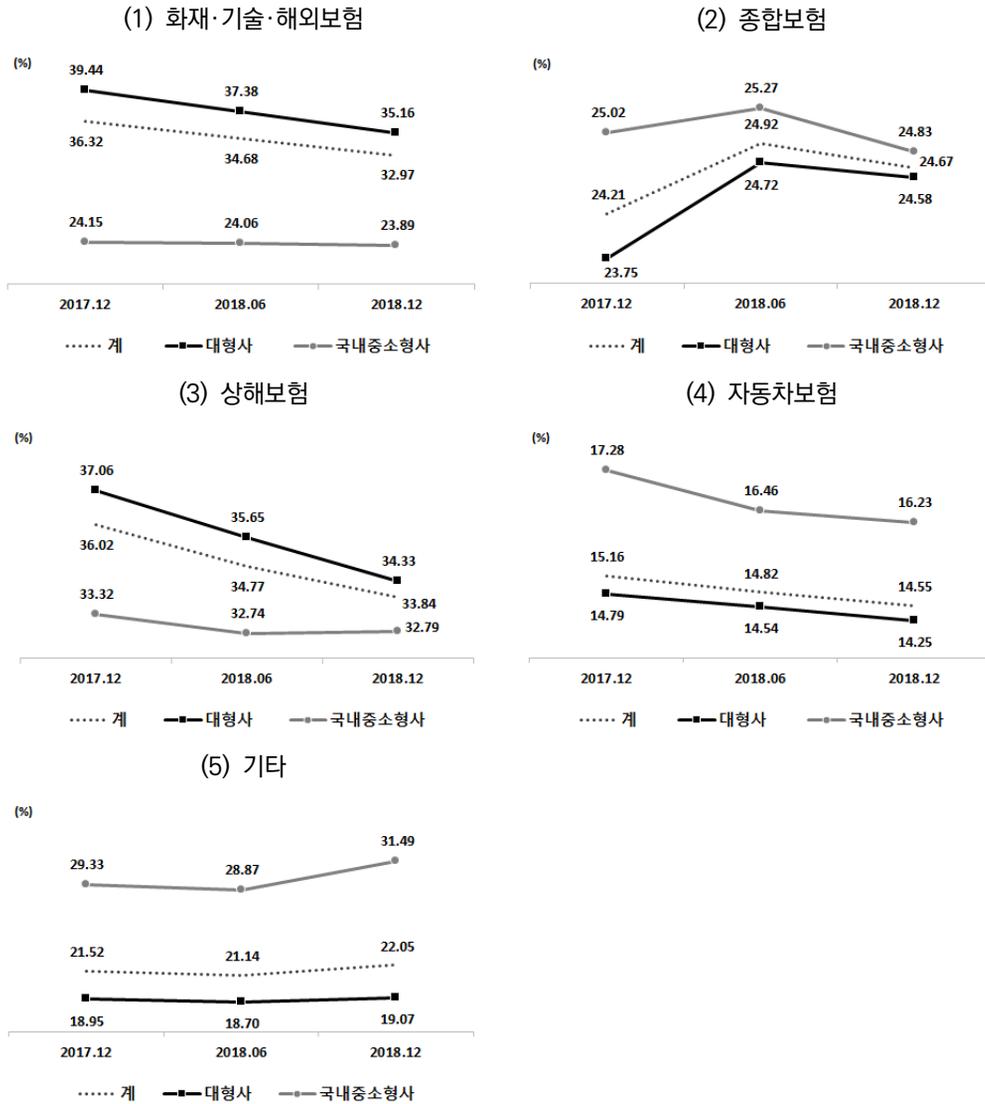
〈그림 102〉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 **[보험가격위험계수]** 2017년에 비해 화재·기술·해외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가격 위험계수는 하락한 반면, 종합보험과 기타 보험의 보험가격위험계수는 소폭 상승함

〈그림 103〉 자동차·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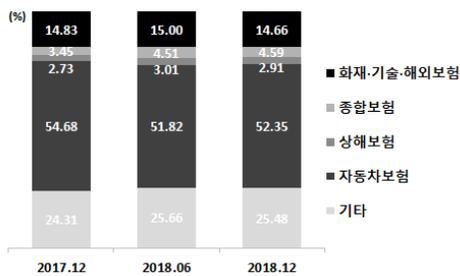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 익스포저]** 2017년에 비해 자동차보험, 화재·기술·해외보험 비중이 줄고 종합보험, 상해보험 비중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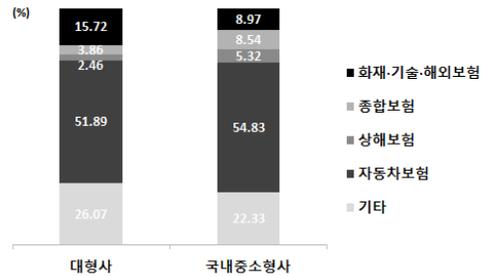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상해보험 비중이 높은 반면 화재·기술·해외보험 비중은 낮음

〈그림 104〉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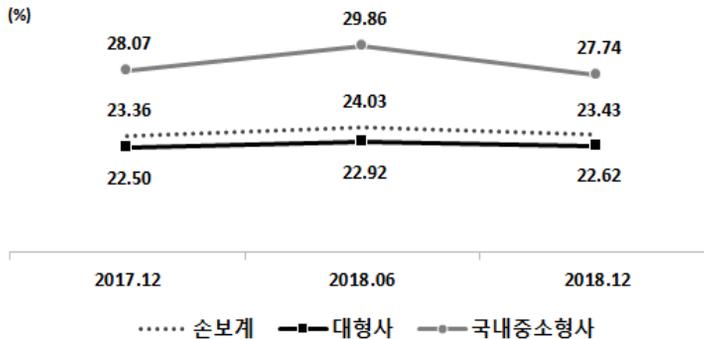
〈그림 105〉 회사 유형별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익스포저 비중



주: 위에서부터 화재·기술·해외보험, 종합보험 순임
자료: 경영공시

■ **[지급준비금위험계수]** 2017년에 비해 대형사의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의 지급준비금위험계수는 하락함

〈그림 106〉 자동차·일반손해보험 지급준비금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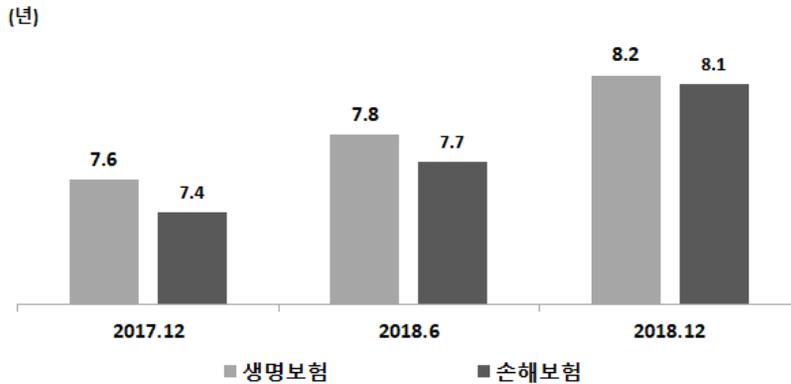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다. 금리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음

- 저금리 환경과 향후 도입될 회계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자산듀레이션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107〉 자산듀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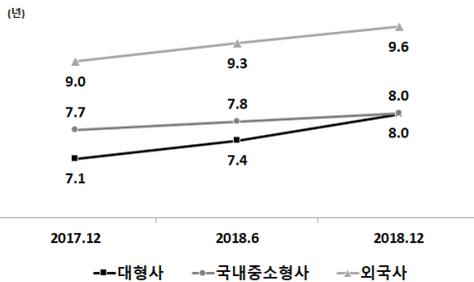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은 대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중소형사가 자산듀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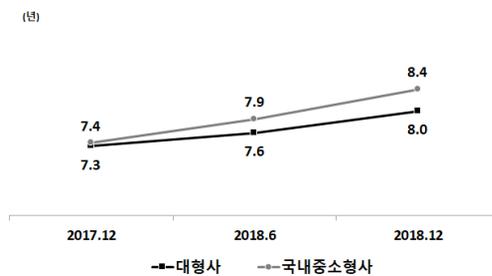
- 2017년 말 대비 생명보험 대형사는 0.9년을,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1.0년을 확대시킴

〈그림 10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0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산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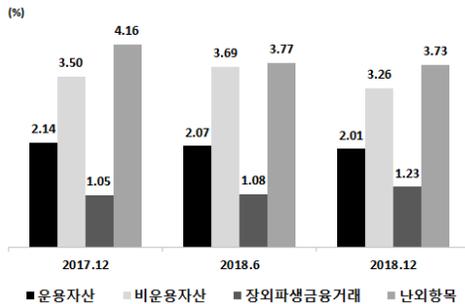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라. 신용위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 모두 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가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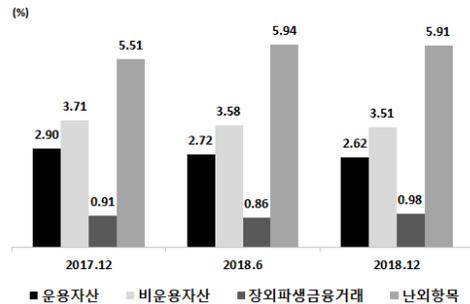
- 운용자산의 신용위험계수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2017년 말 2.14%에서 2018년 말 2.01%로,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2017년 말 2.90%에서 2018년 말 2.62%로 소폭 하락함
- 보험산업은 장기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서 신용위험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그림 110〉 생명보험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1〉 손해보험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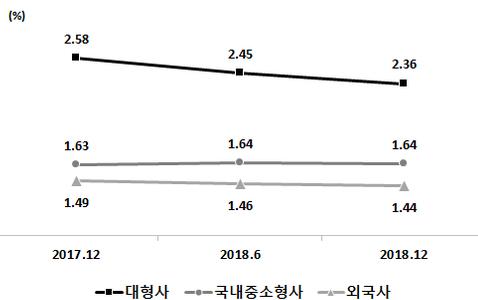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 생명보험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다변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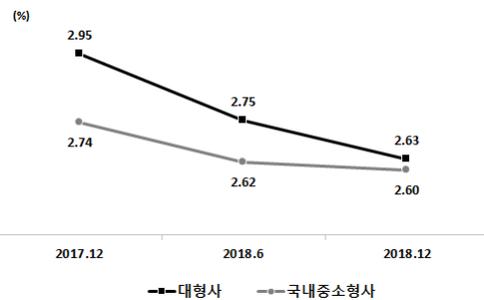
- 생명보험 중소형사는 장기 안전자산 매입에 의한 수익률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 신용위험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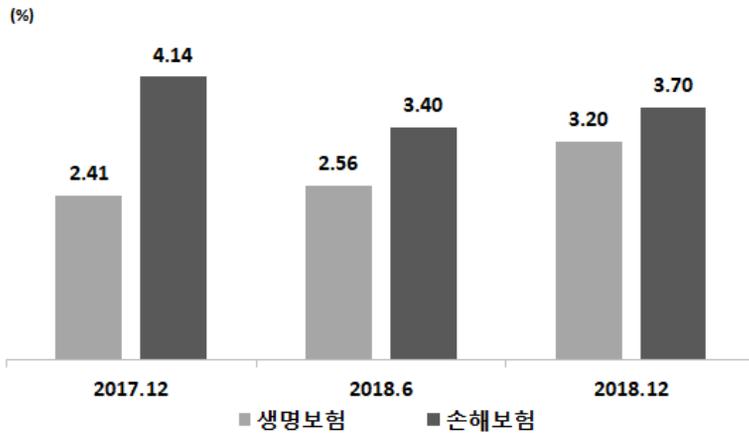
자료: 경영공시

마. 시장위험

■ 2017년 말에 비해 손해보험회사는 시장위험계수가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시장위험계수가 대폭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보증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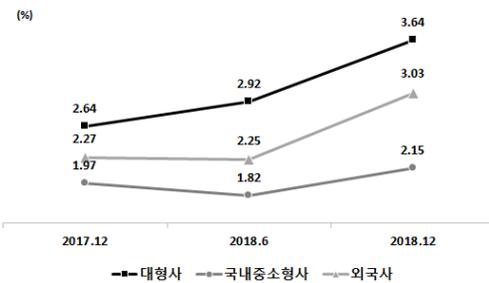
〈그림 114〉 시장위험계수 추이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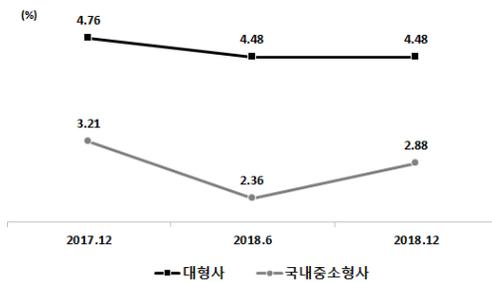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변액보험 비중이 높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위험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1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그림 11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시장위험계수



자료: 경영공시

Ⅲ. 해외보험 동향

- 이번 해외보험 동향은 2018년 세계 보험산업 규모 및 전망과 함께 미국 보험회사의 기타 장기투자자산 동향, 2018년 일본 생명보험산업 주요 실적,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동향을 수록함
 - Swiss Re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5조 1,930억 달러(세계 GDP의 6.1%에 해당)로 전년 대비 1.5%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까지 2.9% 성장(실질)이 전망됨
 - 2018년 우리나라 수입보험료는 세계 보험산업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2029년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 보험산업의 기타장기투자자산에서 헤지펀드 투자가 축소되면서 비중 또한 축소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투자전략인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양한 전략에 자산을 배분하는 다중전략(Multi-Strategy)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영업이익은 3조7,71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387.7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72.1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하였고, 보유계약액은 982.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함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조 6,746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57개사, 28개사가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2.6%, 7.4%임
 - 2013~2017년 5년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평안생명과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국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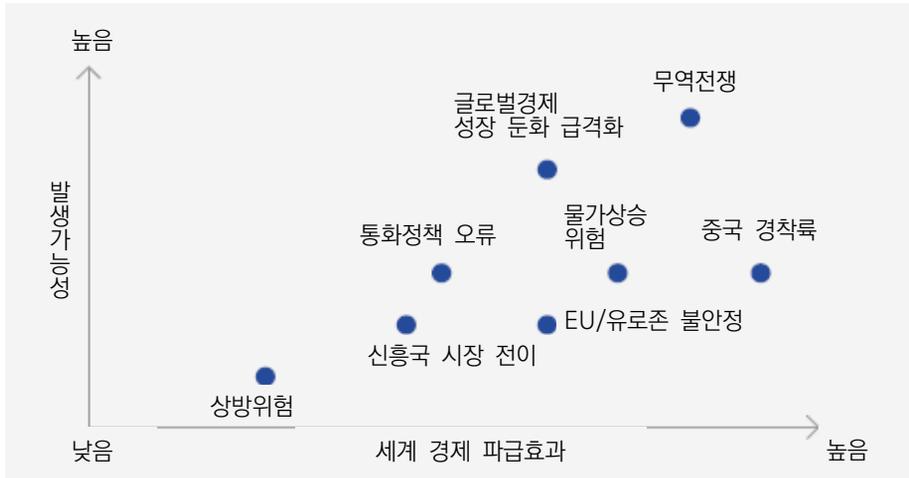
1. 2018년 세계 보험산업 규모 및 전망¹⁾

가. 경제환경

- Swiss Re는 2020년까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8년 3.2%보다 낮은 2.8%로 전망함
 - 선진국에서의 견조한 노동시장과 임금상승은 보험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무역환경 침체는 관련 보험종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소한 향후 2년간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무역긴장 확대이며, 중국 경착륙 가능성, EU 불안정성, 물가상승으로 인한 통화정책 오류 가능성 등임
 - Swiss Re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30%로 예상함
 - 두 번째 위협요인인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15%로 예상함
 -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이슈와 같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EU 및 유로존의 불안정성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15%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물가상승 확대가 예기치 않은 통화긴축을 야기하여 발생하는 통화정책 오류가 세계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함
 - 미국 노동시장 강세로 물가상승 위험이 높아지면 미 연준은 예상치 않게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미국의 통화정책 오류는 채권금리 급등, 미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

1) Swiss Re(2019. 7. 4), "World insurance in 2018: the great pivot east continues", Sigma No.3를 요약 정리함

〈그림 1〉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7

나. 보험산업

- 2018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5조 1,930억 달러(세계 GDP의 6.1%에 해당)로 전년 대비 1.5%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까지 2.9% 성장(실질)이 전망됨
- 2017년 대비 성장률 둔화는 유럽, 중국, 남미 지역의 생명보험 실적악화 때문임
 - Swiss Re는 미국의 보험료 둔화가 심하지 않고 영국의 1회성 대형 거래로 2017년 성장률을 1.5%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음
- Swiss Re는 2018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산업의 상품구조 분석을 통해 향후 종목별 취약점을 전망함
 - 생명보험의 88%를 차지하는 저축성 상품은 현재 주력상품이나 저금리와 자본 규제로 인해 상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함
 - 손해보험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비용 감소가 예상됨

■ 2018년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8조 달러로 전년 대비 0.2%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 2.9% 성장(실질)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생명보험산업 성장률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8%로 하락하였으며, 신흥국은 2017년 13% 성장 이후 2018년 2.0%로 하락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중국의 생명보험 실적 악화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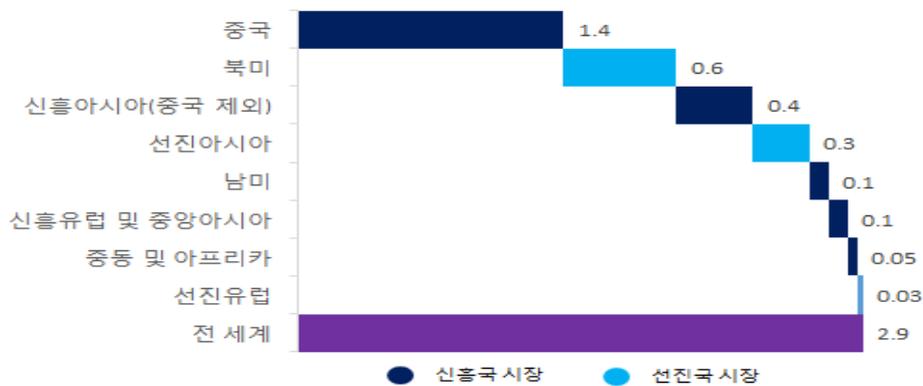
- 중국의 감독규제 강화로 단기 유니버설 생명보험 상품판매가 감소하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며²⁾ 수익성이 악화됨

○ 중국의 회복과 미국, 캐나다 주도의 성장으로 2019/20년까지 세계 생명보험 실질성장률은 2.9%로 전망됨

- 중국은 글로벌 생명보험 성장의 거의 절반(1.4%p)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북미 성장률 기여도 전망치(0.6%p)의 두 배 이상의 수치임

〈그림 2〉 2020년 지역별 실질보험료 성장률 기여도 전망

(단위: %p)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15

2) 2018년 상해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25% 하락함

■ 2018년 세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4조 달러로 전년 대비 3.0% 성장(실질)하였으며 2019/20년 3.0%의 실질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은 선진국(1.9%)에 비해 신흥국(7.1%) 성장률이 더 높았으며, 기타지역에 비해 중국과 북미지역의 성장 기여도가 컸음

- 중국은 건강 및 상해보험 증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비자동차보험 부문 성장이 긍정적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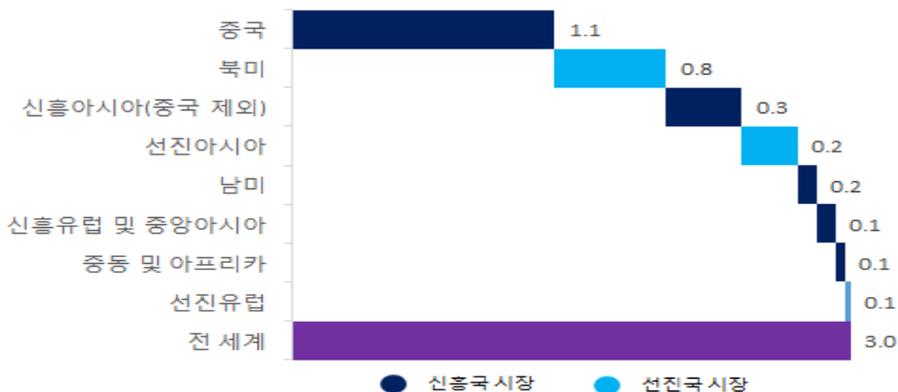
○ 중국과 함께 미국,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2019/20년 세계 손해보험 실질성장률은 3.0%로 전망됨

- 중국은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1.1%p), 이는 북미 성장률 전망치(0.8%p)보다 높음

- 중국에 비해 선진국 성장률이 둔화되었기는 하나, 앞으로도 글로벌 손해보험 성장률에 절반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⁴⁾

〈그림 3〉 2020년 지역별 손해보험 성장률 기여도 전망

(단위: %p)



자료: Swiss Re(2019. 7. 4), Sigma No.3, p. 18

3) 중국 자동차보험은 신차 매출 하락과 가격정책 개편 등으로 낮은 성장을 하였고(2018년 3%), 향후에도 관세 자유화 및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삭감 등이 자동차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현재 Sigma에 따르면 전 세계 손해보험에서 선진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임

- 2018년 우리나라 수입보험료는 세계 보험산업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7위를 기록하였으며, 2029년 3.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비중은 3.5%로 세계 8위, 손해보험 비중은 3.4%로 세계 7위를 기록함
 - 수입(원수)보험료를 총인구로 나눈 값인 보험밀도는 3,465달러로 세계 17위, 명목 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인 보험침투도는 11.2%로 세계 5위를 기록함

- 향후 세계 보험산업은 아시아 중심의 재편이 지속될 것이며, 2029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세계 보험산업 성장축의 아시아 이동이 계속되어 2029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의 20%,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7년 평균 보험료 성장률 분석에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였음⁵⁾
 - 현재 세계 2위인 중국 보험산업 비중은 2018년 11%에서 2029년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5) 또한 선진국 시장의 손해보험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성장궤적에 근접한 반면, 생명보험 성장률은 시차가 나타남

2.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동향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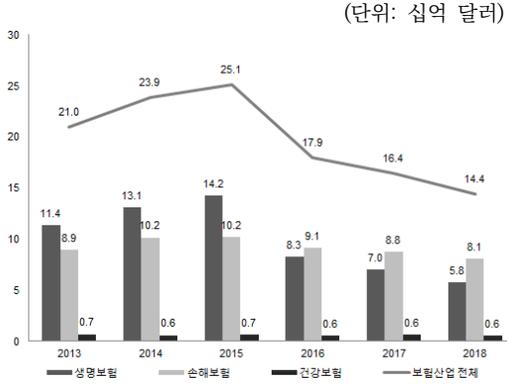
- 미국 보험회사의 자산은 채권 및 주식, 부동산, 기타장기투자자산(사모펀드, 헤지펀드, 담보 및 무담보 대출채권과 같은 비전통적 장기투자자산) 등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자산 중 채권은 48.4%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은 31.5%이며 부동산은 7.1%, 기타장기투자자산은 4.0%를 차지함⁷⁾

- 최근 미국 보험산업의 기타장기투자자산에서 헤지펀드 투자가 축소되면서 비중 또한 축소되고 있음
 -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액은 2015년 251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 179억 달러로 대폭 감소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4> 참고)
 - 생명보험은 2015년 142억 달러에서 2018년 58억 달러로, 손해보험은 2015년 102억 달러에서 2018년 81억 달러로, 건강보험은 2015년 7억 달러에서 2018년 6억 달러로 감소함
 -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비중도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5> 참고)
 - 생명보험은 2015년 8.8%, 손해보험은 10.5%, 건강보험은 10.0%에서 2018년 각각 5.8%p, 3.1%p, 4.6%p 감소하여 3.0%, 7.4%, 5.4%를 기록함

6) 미국 보험산업 이슈는 AM Best(2019. 7. 10), "Life Insurers Continue to Reduce Hedge Fund Investments"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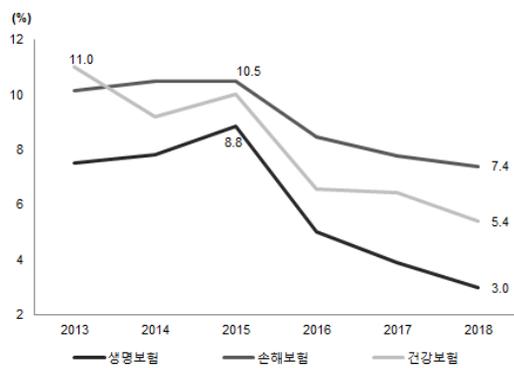
7) ACLI(2018. 10. 26), "Life Insurers Fact Book 2018"

〈그림 4〉 미국 보험산업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금액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그림 5〉 미국 보험산업 기타장기투자자산 중 헤지펀드 투자비중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 보험산업 전반적으로 헤지펀드 투자 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회사별로는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 금액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보험산업 중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AIG(2018년 기준 기타장기투자자산의 19.7%)의 헤지펀드 투자 금액은 2016년 약 42억 달러에서 2018년 약 28억 달러로 꾸준히 감소함

○ 반면 보험산업 중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프루덴셜(2018년 기준 기타장기 투자자산의 11.2%)의 헤지펀드 투자금액은 2016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8년 약 16억 달러로 증가함

〈그림 6〉 미국 보험산업 헤지펀드 투자비중 상위 2개사 3개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투자전략인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양한 전략에 자산을 배분하는 다중전략(Multi-Strategy)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함

- 헤지펀드 투자전략은 대표적으로 Long/Short Equity 전략, 다중전략,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투자 전략,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투자하는 부실 채권투자전략 등이 있음
- 보험회사의 Long/Short Equity 전략과 다중전략은 보험산업의 최근 5개년 헤지펀드 투자 전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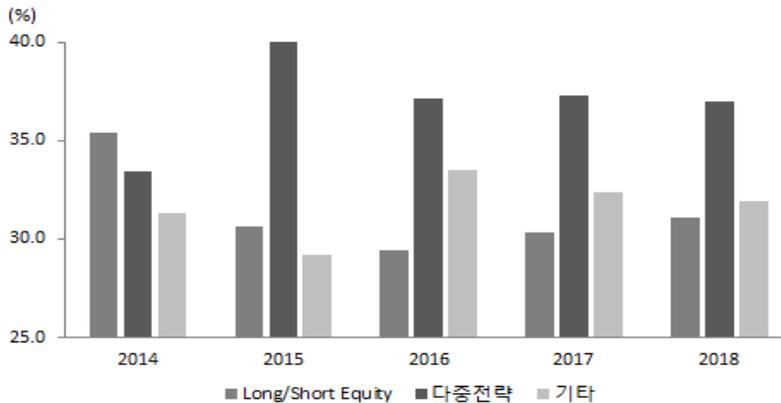
〈표 1〉 미국 보험산업 전체 주요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Long/Short Equity	35.4	30.6	29.4	30.3	31.1
다중전략	33.4	40.2	37.1	37.3	37.0
섹터투자	6.6	6.9	10.2	10.7	10.7
부실채권투자전략	11.2	9.3	9.5	8.7	8.7
기타	13.4	13.0	13.8	12.5	12.5
총합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그림 7〉 미국 보험산업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5개년 추이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 보험산업의 헤지펀드 투자전략 추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산업과 건강보험산업의 경우 섹터투자가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전략이며, Long/Short Equity 전략의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의 Long/Short Equity 전략은 2014년 33%에서 2018년 21%로 감소하였고, 건강보험산업에서는 2014년 57%에서 2018년 30%로 감소함
- 손해보험산업에서는 Long/Short Equity 전략의 비중이 가장 크고, 부실채권투자전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산업에서는 부실채권투자전략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건강보험산업에서는 비중이 미미함

〈표 2〉 미국 보험산업 산업별 헤지펀드 투자전략 비중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015	2016	2017	2018
글로벌 매크로	4	3	3	4	2	6	7	9	8	9	-	-	-	-	-
Long/Short Equity	33	29	23	21	21	37	33	34	36	38	57	40	51	53	30
합병차익거래	1	0	0	0	0	1	1	2	0	0	-	-	-	-	-
채권차익거래	4	4	5	6	4	0	1	1	1	2	-	4	-	-	-
Convertible Arbitrage	0	0	1	0	0	1	1	0	0	0	-	-	1	1	1
선물/옵션/외환	0	1	1	0	0	5	4	3	3	3	-	-	0	1	1
섹터투자	7	7	14	14	15	5	5	6	7	7	17	31	20	19	21
부실채권투자	14	11	12	9	8	9	7	8	8	10	1	-	1	0	0
신흥시장투자	3	3	2	2	2	3	3	3	3	2	-	1	-	-	-
다중전략	34	42	40	44	47	33	38	35	33	29	25	23	28	26	47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AM Best data and research

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실적

가. 생명보험 주요실적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기초이익은 3조7,714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익은 2조4,439억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72%의 비중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35.3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5.5조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49.5%의 비중을 차지함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총자산은 387.7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함
 - 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09.8조 엔으로 생명보험산업의 66.9%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일본 생명보험산업 기초이익, 수입보험료, 총자산(FY2018)

(단위: 억 엔(영업이익), 조 엔(총자산), %)

구분 ^{1),2)}	기초이익 ³⁾			수입보험료			총자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업생명보험회사	25,025	3.8	73.7	18.1	5.7	57.7	225.1	2.4	71.7
대형 생명보험회사	24,439	4.7	72.0	15.5	3.4	49.5	209.8	1.8	66.9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7,439	10.1	21.9	8.7	7.0	27.8	54.7	3.6	17.4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	795	13.9	2.3	3.0	3.5	9.6	21.5	7.1	6.9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83	71.5	2.0	1.5	7.6	4.9	12.5	7.5	4.0
소계	33,942	6.2	100.0	31.3	5.9	100.0	313.8	3.1	100.0
우정 간이생명보험	3,772	-2.3	(11.1)	4.0	-6.5	(12.7)	73.9	-3.8	(23.6)
총계	37,714	5.2		35.3	4.4		387.7	1.7	

주: 1) 전업생명보험회사는 15社(그 중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15社,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는 4社,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社로 총 40社

2) 간이생명보험(간포보험)은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이 보험(かんいほけん)의 출입말로, 일본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3) 보험회사의 기초이익은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을 더한 금액

자료: 닛세이기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72.1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신규계약액은 21.5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함(FY2017 신규계약액은 전년도 대비 38.5% 감소)
 - 외화보험과 개인정기보험의 판매증가가 신규계약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 FY2018 일본생명보험의 보유계약액은 982.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액은 543.8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함(FY2017 보유계약액은 전년도 대비 4.2% 감소)

〈표 4〉 일본 생명보험산업 신규계약액, 보유계약액(FY2018)

(단위: 조 엔, %)

구분 ^{1),2)}	신계약액			보유계약액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업생명보험회사	24.6	15.2	37.0	562.7	-3.4	62.7
대형 생명보험회사	21.5	15.9	32.3	543.8	-3.8	60.6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20.9	10.8	31.4	181.9	3.9	20.3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	11.9	31.0	17.9	86.4	4.1	9.6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9.1	22.7	13.7	66.8	5.9	7.4
소계	66.5	17.3	100.0	897.8	-0.6	100.0
우정 간이생명보험	5.6	1.8	8.4	85.1	-4.3	9.5
총계	72.1	15.9		982.9	-0.9	

주: 1) 전업생명보험회사는 15社(그 중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15社, 손해보험계열 생명보험회사는 4社, 제조업계열 생명보험회사 6社로 총 40社

2) 간이생명보험은 간포보험은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이 보험(かんいほけん)의 줄임말로, 일본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자료: 닛세이치조사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나. 이원별 손익현황(대형 생명보험회사)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의 기초이익은 2조 4,439억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6.4% 증가함

○ 사차익·위험차익은 2016년부터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이차익은 7,192억 엔으로 연평균 33.5% 증가함

- 저금리 상황에서도 외국채 이자와 국내의 주식 배당 증가가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높은 이율로 계약한 보유계약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줄어든 것으로 보임

〈표 5〉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기초이익 현황

(단위: 억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CAGR
이차익(A)	4,035	6,160	7,192	33.5
사차익 및 위험차익(B)	17,557	17,182	17,247	-0.9
기초이익(A+B)	21,592	23,332	24,439	6.4

주: 1)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9社の 기초이익임

2) 기초이익은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을 더한 금액임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위험차익은 1조5,055억 엔으로 작년 대비 2.9%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위험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0.9% 감소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이차익은 6,629억 엔으로 작년대비 16.3%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33.7% 증가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9개社 중 7개社)의 사차익은 1,238억 엔으로 작년대비 17.5% 감소함

○ FY201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사차익이 기초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2016년도부터 연평균 13.2% 증가함

〈표 6〉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7社) 이원별 손익

(단위: 억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CAGR
기초이익	금액	20,001	21,838	22,928	7.1
	비중	100.0	100.0	100.0	-
위험차익	금액	15,329	14,634	15,055	-0.9
	비중	76.6	67.0	65.7	-7.4
이차익	금액	3,707	5,700	6,629	33.7
	비중	18.5	26.1	28.9	24.9
사차익	금액	966	1,500	1,238	13.2
	비중	4.8	6.9	5.4	5.7

주: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9社 이며, 그 중 공개한 7社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예정이율은 하락한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은 상승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평균예정이율은 2016년 2.25%에서 2018년 2.13%로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가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1%대이며, 계약 중 낮은 예정이율을 가진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도 감소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은 2016년 2.5%에서 2018년 2.57%로 상승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과 평균예정이율과의 스프레드는 2016년 0.25%p에서 2018년 0.44%p로 확대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기초이율과 평균예정이율의 스프레드 확대는 이차익 증가로 나타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익은 2016년 4,035억 엔에서 2018년 7,192억 엔으로 증가함

-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은 2013년부터 해소되었으며 2018년의 이차익은 2006년 이후 사상 최고치임

〈표 7〉 일본 대형 생명보험 이차익 내역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6	FY2017	FY2018
이자율 차이(C=B-A)	0.25	0.38	0.44
평균예정이율(A)	2.25	2.19	2.13
기초이율(B)	2.50	2.57	2.57
책임준비금(D)	159.2조 엔	161.7조 엔	163.8조 엔
이차익(C×D)	4,035억 엔	6,150억 엔	7,192억 엔

주: 1) 이차율차익=책임준비금×(기초이율-평균예정이율)

2) 기초이율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성으로 볼 수 있음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다. 지급여력 현황(대형 9개 생명보험회사)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16년 903.4%에서 2018년 966.9%로 2016년 대비 63.5%p 증가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2016년 34.5조 엔에서 2018년 38.4조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5.5% 증가함
-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총위험액은 2016년 7.6조 엔에서 2018년 7.9조 엔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2.3% 증가함

〈표 8〉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조 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지급여력(A)	34.5	37.1	38.4
자기자본	12.2	13.0	13.5
기타 유가증권 평가차액	13.3	14.1	14.2
토지 평가차액	0.7	1.0	1.2
부채성자본조달	2.9	3.4	3.7
계약반환금 초과액	5.4	5.6	5.8
총 위험(B)	7.6	8.0	7.9
지급여력비율(A/(B÷2)) ¹⁾	903.4%	922.0%	966.9%

주: 일본의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에 (총위험÷2)를 나눔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2019. 7. 18), 『2018年度生命保険会社決算の概要 - 外貨建資産、外貨建保険が引き続き増加』

4.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⁸⁾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조 6,746억 위안을 기록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국민소득 증가, 인구고령화 심화 및 생명보험 예정이율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두 자릿수로 성장하기 시작함

- 중국의 1인당 GDP는 2008년에는 3,468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 7,630달러, 2017년 8,762달러로 상승함

-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00년 7.0%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0년 8.9%, 2017년 11.4%로 지속 상승함⁹⁾

-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1999년부터 2.5%로 한정됐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면 폐지돼 3.0%~4.0% 수준으로 상승함¹⁰⁾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세계보험시장의 12.0%를 차지하면서, 일본(11.6%)을 제치고 미국(20.6%)에 이어 세계 2위권에 진입함

-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3,176억 달러로 6.1% 감소한 일본의 3,072억 달러를 넘어섰음¹¹⁾

- 미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 대비 1.9% 감소한 5,469억 달러를 기록함

○ 다만 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36.5%)에 비해 둔화된 모습임

- 2017년 중국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는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매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¹²⁾

- 중국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매출 감소는 2016년 3월부터 발표된 일련의 생명보험회사

8) 중국의 생명보험 유형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 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장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이 있음

9)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10)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 폐지는 2013년 8월 배당금이 없는 전통형 생명보험, 2015년 3월 유니버설 생명보험, 2016년 9월 유배당 생명보험의 순서대로 시작됨

11) Swiss Re(2018. 7), "World insurance in 2017: solid, but mature life markets weigh on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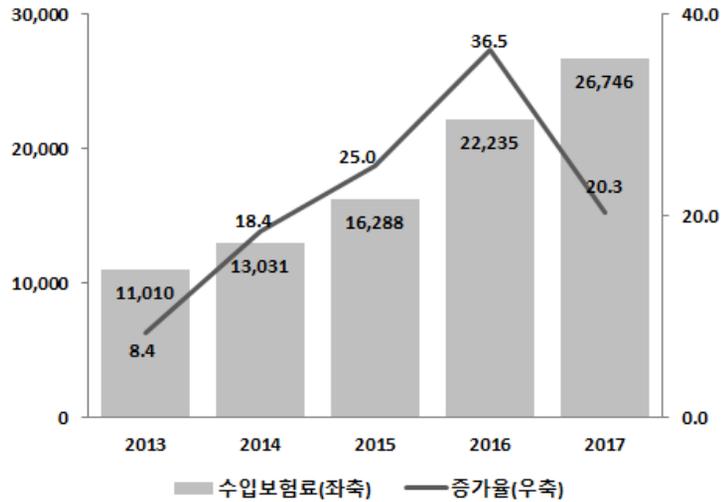
12) 중국 유니버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2.0%, 2015년 95.0%, 2016년 55.0%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50.0%로 급감함. 2017년 1~11월의 유니버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4.4%에서 18.0%로 급락함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때문임¹³⁾

* 2016년 3월 발표된 “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는 보험기간 5년 이하의 생명보험 판매를 제한했으며,¹⁴⁾ 2017년 5월 발표된 “생명보험 상품개발 관리강화 조치”는 유니버설 생명보험을 특약으로 설계한 생명보험의 판매를 금지함

〈그림 8〉 2013~2017년 중국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7년 중국의 생명보험회사¹⁵⁾ 수는 85개를 기록함

-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57개사, 28개사가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92.6%, 7.4%임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한국계 생명보험회사는 BOC-Samsung Life(삼성생명 중국법인), Sinokorea Life(한화생명 중국법인)이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15%, 0.02%임

■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은¹⁶⁾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각각 1~5위를 차지함

13) 이소양(2017. 9), 「2017년 상반기 규제강화에 따른 중국 생명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KiRi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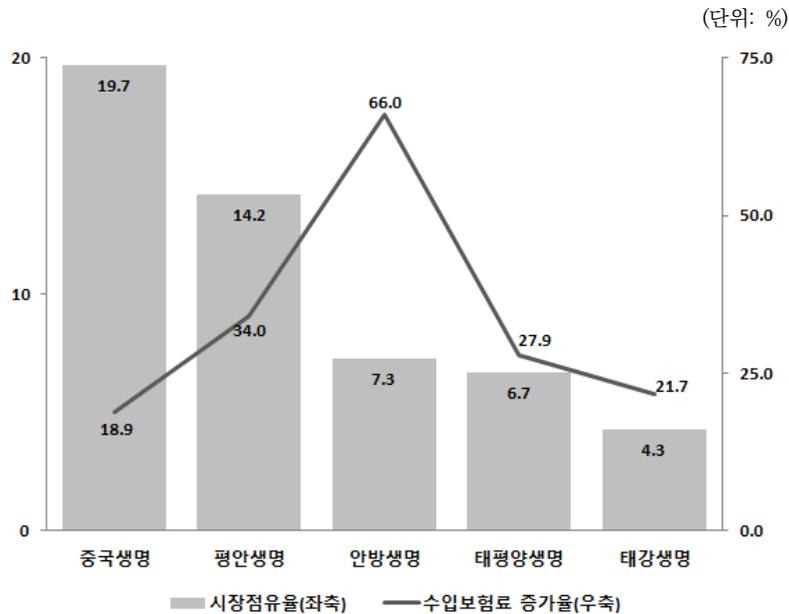
14)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했던 대다수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보험기간 5년 이하의 생명보험으로 설계됨

15)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일반보험회사인 생명보험회사(71개) 외에도 전문보험회사인 건강보험전문보험회사(6개), 연금보험전문보험회사(7개), 온라인전문생명보험회사(1개) 및 생명보험상호회사(1개)를 포함함

16) 중국생명은 국영보험회사이며,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은 모두 민영보험회사임

- 중국생명(19.7%)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8.9%로 생명보험시장의 평균 증가율(20.3%)에 못 미침
- 평안생명(14.2%), 안방생명(7.3%), 태평양생명(6.7%) 및 태강생명(4.3%)은 각각 2~5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생명보험시장 평균 증가율을 초과함
 - 2017년 평안생명, 안방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4.0%, 66.0%, 27.9% 및 21.7%임

(그림 9) 2017년 상위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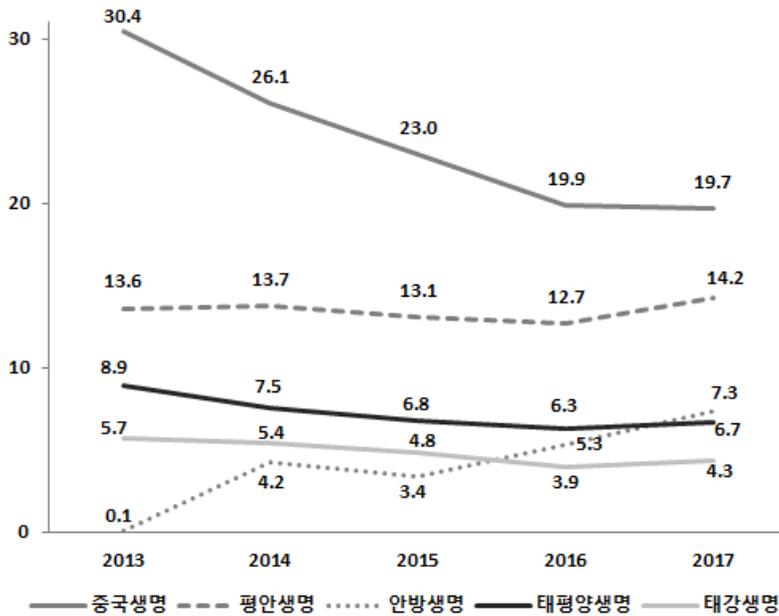
- 2013~2017년 5년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평안생명과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중국생명,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함
 - 평안생명과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3년 13.6%, 0.1%에서 2017년 14.2%, 7.3%로 상승함
 - 평안생명의 시장점유율은 2014~2016년 3년 연속 감소했지만 보험설계사 채널 강화 및 핀테크 사업 확대 전략¹⁷⁾으로 2017년에는 반등세로 돌아섬

17) 평안생명을 소유하는 평안보험그룹은 보험, 은행 및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13년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평안테크를 설립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금융혁신 기술 개발에 착수함

- 2014~2017년 5년간 안방생명의 시장점유율은 공격적인 고금리 유니버설 생명보험 판매로 지속 상승함
- 중국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자사의 상품구조 전환정책으로 2013년 30.4%에서 2017년 19.7%로 크게 하락함
 - 중국생명은 2014년까지 일시납 생명보험을 주력상품을 판매했으나 2014년부터 장기납 생명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 태평양생명과 태강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각각 2013년 8.9%, 5.7%에서 2017년 6.7%, 4.3%로 하락함

〈그림 10〉 2013~2017년 상위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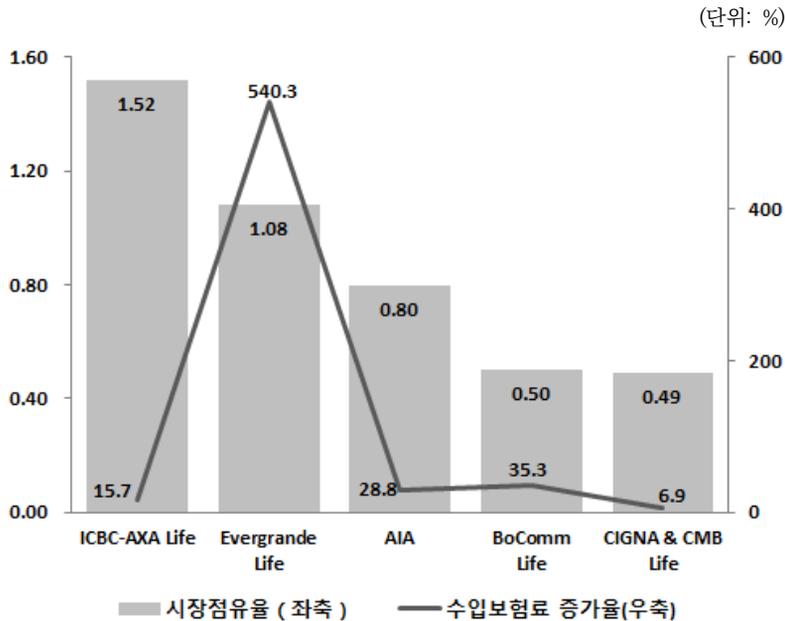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7년 ICBC-AXA Life, Evergrande Life, AIA,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는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각각 1~5위를 차지함
- ICBC-AXA Life는 1.52%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5.7%로 전체 생명보험시장 평균 증가율(20.3%)보다 낮음

- 2017년 2위사인 Evergrande Life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540.3%나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은 1.08%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3, 4, 5위를 차지한 AIA(0.80%), BoComm Life(0.50%) 및 CIGNA & CMB Life(0.49%)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1%대에 못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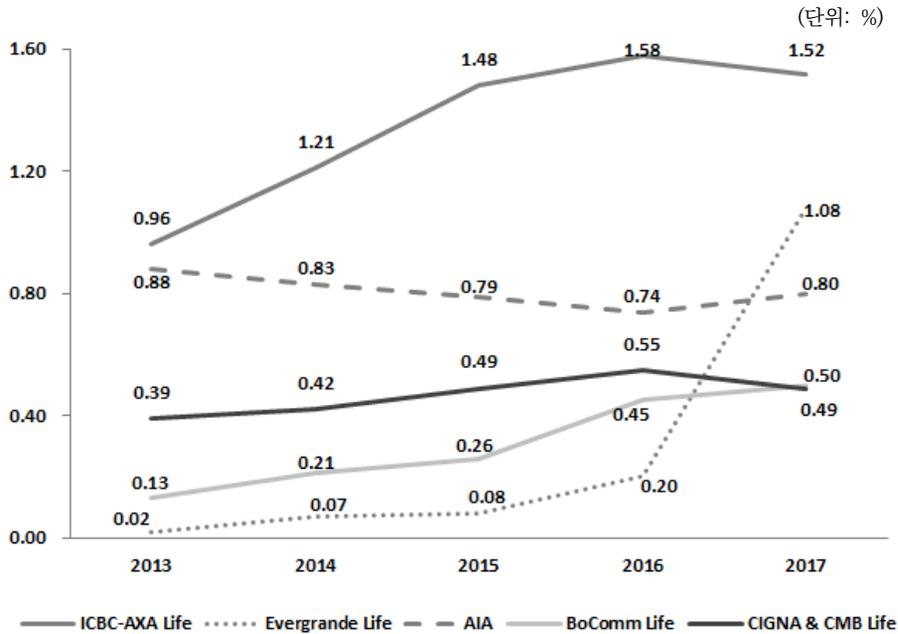
〈그림 11〉 2017년 상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성장 상황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3~2017년 5년간 외국계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AIA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4개사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AIA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88%에서 2016년 0.74%까지 하락다가 2017년에는 0.80%로 다소 회복됨
 - 반면 2017년 ICBC-AXA Life, Evergrande Life,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3년 0.96%, 0.02%, 0.13%, 0.39%에서 1.52%, 1.08%, 0.50%, 0.49%까지 상승함
 - 특히 2017년 Evergrande Life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약 5배 상승함

〈그림 12〉 2013~2017년 상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한편, 시장점유율 순위와 달리 2017년 순이익 기준 평안생명 및 AIA는 각각 중국계 및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평안생명은 347억 위안으로 328억 위안을 기록한 중국 생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태평양생명 및 태강생명의 순이익은 각각 101억 위안, 93억 위안임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AIA는 20억 위안으로 11억 위안을 기록한 Evergrande Life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함

- ICBC-AXA Life, BoComm Life 및 CIGNA & CMB Life의 순이익은 각각 6억 위안, 3억 위안, 7억 위안임